

전체 주제:

하나님의 뜻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

성경: 엡 1:9-10, 4:15-16, 골 2:19, 고전 8:1하

I.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엡 1:9-10.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 그분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경륜 혹은 시대적인 안배는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 B. 이것은 생명의 요인이신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교회의 모든 지체 안에 분배하여, 그들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몸에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성취된다.
- C. ‘때’는 시대들을 가리킨다. 때가 차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분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이다.
 - 1. 분배(dispensation)는 분배하는 행동이나 분배하는 특별한 일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놓여지는 것이 필요하다.
 - 2. 시대들에는 모두 네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시대(아담), 율법 시대(모세), 은혜 시대(그리스도), 왕국 시대(천년왕국)이다.
 - 3.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요셉 안으로 분배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셨고, 두말할 나위 없이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더욱더 많이 분배하셨다.
 - 4. 이러한 분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계속된다. 현재 하나님의 분배는 사도 바울의 때에 있었던 분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분배되고 있다 — 비교 엡 3:2, 벧전 4:10.
 - 5. 이 분배는 천년왕국을 거쳐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궁극적인 분배, 완결된 분배는 삼일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 성 전체 안으로 분배하는 것일 것이다 — 계 22:1-2.
 - 6. 우리는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이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린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수이신 그 영을 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완결된 분배를 기다린다. 완결된 분배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 고전 10:3-4, 12:13, 계 2:7, 22:2, 14, 요 6:57.
 - 7.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도 있다(요 1:4, 8:12).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통제하는 빛일 것이다(계 21:23).
 - 8.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나 죽음이나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생명과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고 좋은 질서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되게 할 것이다(계 21:24, 엡 1:10).

9.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일 것이다.
- D.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은 1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항목, 곧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과 우리를 구속하신 것과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결과이다.
- E.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천사들의 배역과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출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붕괴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 F.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절대적인 평안과 조화가 있을 것이고(사 2:4, 11:6, 55:12, 시 96:12-13), 모든 것이 그 붕괴에서 완전히 구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만물이 복원될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행 3:21).
- G.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죽고 메마르고 흠어진 뼈들의 그림은 진정한 하나 안에서 몸과 교회와 하나님의 집을 얻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1. 죽은 사람들 안으로 숨이 들어갔을 때, 그 숨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나 하나로 일어서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2. 죽은 뼈들은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성장의 결과로 살아났고 하나가 되었다 — 겔 37:1-14.
 3.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길은 생명의 요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몸 안에서 서로서로를 견고하게 연결시키시는 것이다.

II.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의미한다 — 엡 4:15, 속 4:10.

- A. 몸의 유기적인 건축은 몸의 성장이며,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 엡 2:21-22, 4:16, 골 2:19.
- B. 자라는 지체가 건축하는 지체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엡 4:16, 비교 욥 1:1-5, 42:1-6.
- C.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려면,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요소와 범위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참된 것들을 의미한다 — 엡 4:15, 롬 3:4.
 1.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붙잡아야 한다 — 딤후전 1:3-4.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 엡 3:9.
 - b. 이 경륜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 엡 3:10-11, 1:22-23, 고전 1:30.
 2.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 요 14:6, 엡 1:23.
 - a. 그분의 분량은 측정할 수 없다 — 엡 3:18.
 - b. 그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다 — 엡 3:8.
 - c. 그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 — 엡 3:19.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붙잡아야 한다 — 딤후전 3:15.
 - a.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행 9:4, 고전 12:12.

- b.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충만이자 표현이다 — 엡 1:23, 3:19.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 골 2:19, 비교 수 9:14, 벰전 5:3, 마 20:25-27, 23:10-11.
 - 1.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다 — 고전 11:3.
 - 2.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 엡 5:23.
 - 3.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 엡 1:22, 10.
- E. 믿는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자 함으로써, 곧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빛 아래 생활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참여한다 — 요 1:4, 8:12, 엡 4:15-16, 5:8-9, 계 21:23-25.
- F.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 안에서 증가하시고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란다.
 - 1.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롬 8:6).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알고 사용하며 훈련해야 한다(딤후 4:6-8).
 - a.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도록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 b. 에베소서 2장 22절은 모든 믿는 이들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c. 에베소서 3장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영 안에 계시되었다고 말한다.
 - d. 에베소서 3장 16절은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보여 준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이 속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 e.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한다.
 - f.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 g.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 2.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체현인 거룩한 말씀을 짓과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 — 벰전 2:2, 히 5:13-14.

III. 우리가 생명 안에서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기능이 머리이신 분에게서 나올 것이다 — 엡 4:16, 골 2:19.

- A. 우리가 각각의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공급받을 것이고, 그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몸의 다른 지체들 안으로 옮겨 부어 줄 것이다 — 고전 14:4하, 요 7:37-39.
 - 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으로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 고후 3:6, 8.
 - 2. 우리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빌 1:25, 고후 1:24.
- B.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온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한다 — 엡 4:15-16.
 - 1. 이러한 성장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 곧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 일어난다 — 엡 4:11-12.
 - 2. 이러한 성장은 각 지체, 곧 그리스도의 몸 안의 모든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 엡 4:7-8.
- C.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에 의해 이

루어진다.

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는 가장 뛰어난 길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 의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 줄 수 있다 — 고전 12:31하-13:13.
 2.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요일 4:8, 16) 안으로 이끌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엡 5:25, 6:24, 1:4, 3:17, 4:2, 15-16, 5:2).
 3.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고전 8:1하)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을 가리킨다.
- D. 생명이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기능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에 몸의 건축을 위해 머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에 참여하는 것이다 — 엡 4:15-1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경륜의 의미

이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가르침은 경륜이 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경륜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무죄 시대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한 방식으로 다루시고, 양심 시대의 경륜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신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이다. 경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다. 경륜은 곧 분배하는 것이다.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선택된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경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러 도식을 연구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분배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는 것만을 기억하자.

생명의 분배

우리가 지적인 바와 같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이 사탄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어둠이 되었다. 죽음은 파멸을 초래했고, 어둠은 혼돈을 가져왔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혼돈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자! 죽음이 더한 곳에 생명은 더욱더 넘쳤다! 사탄이 들어와 죽음을 가져온 후, 하나님은 오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다. 죽음은 파괴하지만 생명은 치료하고, 어둠은 혼돈을 가져오지만 빛은 견고한 질서를 가져온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이 파멸을 가져왔으며, 어둠이 혼돈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은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고 질서를 가져오셨다.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죽은 이들 안으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아담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그분 자신께 속한 무언가를 아벨 안으로 분배하셨다. 하나님은 에노스와 에녹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 죽은 사람인 에녹이 삼백 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창 5:22).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에녹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노아 안으로 분배하셨기 때

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배하신 것은 아벨로 시작하여 각 시대에 걸쳐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에녹에게 이룬 분배는 에노스에게 이룬 것보다 더 많았고, 노아에게 이룬 분배는 에녹에게 이룬 것보다 더 많았다.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많은 분배가 이르렀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그 나타나심은 틀림없는 분배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분배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을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다. 우리의 체험을 되새겨 본다면, 우리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던 날,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분배되었다. 나는 울었고, 내 안에서는 불이 타올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깨우심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분배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실 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분배될 때, 강도가 성도로 변화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가서 삼십 분 동안 그분의 분배를 받기를 권한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문체나 환경은 잊어버리라. 다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잘못을 자백하라. 주님께 자백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분배하실 수 있는 길이 더욱더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든지, 즉 분배하심이라고 하든지, 일깨우심이라고 하든지, 옮겨 부으심이라고 하든지, 주입하심이라고 하든지 간에 체험은 똑같은 것이다. 나는 용어를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신성한 요소가 여러분 안에 분배되는 것을 주의할 뿐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일해 넣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륜이라는 용어의 뜻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분배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경륜에 대해 가르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하시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부담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 사역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관념을 가져오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리나 관념에 대해 따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옮겨 붓는 것이다. 여러분은 교리를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여러분 안에 분배받는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형제회에 있었지만, 결국 교리에 대한 그들의 논쟁에 염증이 났다. 우리에게는 교리가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성한 요소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다.

궁극적인 분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안으로 분배하셨음을 보았다. 그분은 모세에게 더 많이 분배하셨고, 두말할 나위 없이 주 예수님께는 더욱더 많이 분배하셨다. 이러한 분배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계속된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분배가 사도 바울의 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놀랄 것이다. 바울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오늘날 여러분이 듣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무리가 과연 있었겠는가? 오늘날에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가 있다. 이 분배는 천년왕국을 거쳐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때가 찰 때의 분배는 가장 높고 가장 광범위한 분배일 것이다. 이 분배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계시된 바와 같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 곧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21장 1절은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뜻한다.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은 죽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때에는 죽음이 삼켜질 것이다. 천년왕국의 끝에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패배하여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있게 될 것이며, 그 중앙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주의해서 읽어 보면, 새 예루살렘은 사실상 높이가 일만 이천 스타디온, 곧 이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산이다. 그 산꼭대기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다(22:1).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강물은 산 밑으로 흘러내려 그 성의 열두 문에 이른다. 생명수는 마시기 위한 것이고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지, 목욕이나 침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2절).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수의 물을 마실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분배를 본다. 즉 삼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은 생명수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되고 생명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찰 때의 최고의 분배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누리는 축소판

우리는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이 완결된 분배의 축소판을 누린다. 교회 안에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은 교회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배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분배, 때가 찰 때의 분배는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수를 누리며 궁극적인 분배를 기다린다. 우리 모두는 최종적인 분배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린양은 아들을, 생명수의 강은 그 영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7장은 생명의 강이 그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공급인 생명나무이신 아들 하나님과 함께 흐르시는 영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분배, 최고의 분배, 때가 찰 때의 분배이다.

이 분배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여 마침내 때가 찰 때의 분배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때가 찰 때의 분배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쁨으로 인해 춤을 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궁극적인 분배에는 우리만큼 가깝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최종적인 분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생활 가운데서 장차 올 그러한 분배의 축소판을 맞본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누리는 것이다.

생명 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곧 빛 되시네
(영한 동변 찬송가 1151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968장))

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다니!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적셔진다. 우리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높이 오른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생명의 빛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요 8:12).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생명과 빛을 본다. 새 예루살렘은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다. 23절은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취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우리의 빛이신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과 죽음과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생명과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일어서고 질서 있게 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에 질서가 있다. 만일 로스앤젤레스시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둠과 혼돈이 어떠하겠는가!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한다. 교회생활 안에는 규례가 없지만 조절하는 생명과 다스리는 빛이 있다.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또한 빛으로도 충만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밖의 규율이 아닌 안의 생명으로 조절되며, 생명의 빛으로 통제되어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생명과 빛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머리와 머리를 둘러싼 몸을 보며, 그 성의 빛 가운데 행하는 민족들을 본다(24절).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빛나는 영역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이다. 이것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된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성취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성취되려면 생명의 분배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분배된 그 생명이 마침내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이다. 때가 찰 때의 분배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이것은 죽음이나 어둠이나 파멸이나 혼돈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 대신 만물이 견고한 질서 가운데서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만물이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때,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생활은 이것을 먼저 맛보는 생활이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이러한 축소판 가운데 있는 이들로써 우리는 생명과 함께 빛의 분배를 누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105-112쪽)